

경노의심곡



[해제]

<경노의심곡>은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으로 내방가사이다. 작자와 필사자는 미상이며, 창작시기와 필사시기 또한 미상이다. 한글 흘림체의 줄글형태의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가독성(可讀性)이 약간 떨어져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노의심곡>은 제목부터가 난해하다. 작품 내용으로보면 한 여인네의 일생을 회고하는 일이 주류를 이룬다. 이로 미루어보아 ‘경노’는 작중 인물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지명을 뜻할 수 있으며, ‘의심’은 아마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뜻하는 ‘회심(悔心)’ 또는 ‘마음을 돌이켜 고치다’라는 뜻의 ‘회심(回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중화자는 여성이다. 부모님 곁을 떠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려나 가는데, 그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몇가지 단서가 보인다. 우선 일제강점기 상황을 뜻하는 ‘경술(庚戌)’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합방(合邦)’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개화의 물결을 따라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6.25 동란으로 인해 전국토가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작중화자의 가정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한탄한다. 그러나 난리통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상을 잘 모시고 가족이 서로 화합할 수 있을 때 번영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훈계를 담고 있다.

[원문]

경노의심곡

일심 경역을 뒤강

추억 기록할가 심아 십슈연은

존당의 늙은은덕 부모임 양혹지은

호가사 심장으로 무산고낙 아라스니

십오륙세 계오되어 성흔이 되어스나

존고의 위중환보 번번히 축슈하라

륙월염천 삼복증염 경보가 득달흔이

천의만길 놀나와라 두셔업는 거름이야

경각의 시딕이라 드너션이 노소분의

창황망도 허신동정 의전경회 시딕온다

구경순은 장터갓고 철부지 어린간장

희황천지 횡동테신 어이할이

씨고쌈는 그더위의 시탕을 겸히슨이

그형상 오작하리

십여일 고통이야 언마나 거북한지

보시괴의 민망하고 상석의 미류지환

속회회복 되오시니 보나신다 품영이며

교군이 등딕한이 우환은 용여업고

오난거시 경사가치 집의와 심각한이

출옥하여 형벌밧다 희옥하미 분명후나

이저난 평트리고 성공이나 하고온듯

열친척 지정화로 용여조심 다버리고
일삭을 호화 극낙 조흔세월
조물이 시기하고 하나리 미워하야
팔월 초사일의 비보를 밧고
발상하고 임문하여 초동양예 고례티로
구월의 안장하고 그날부터 마인고통
놉고 김흔산은 지킵존고 은총
일호도 못밧잡고 상탁모장 두엇한티
조석제전 사시향화 엄절예문 견문가의
죄인척임 상가예절 부지분슈 횡동이야
여막의 횡자횡여 혼정신성 곡을할적
직곡하로 쏘차가고 조석제전 밧들적의
밧상쥬 눈의씩면 상식하다 쏘겨나고
이러한 슈치가 한두번 안이라
육글벽석 남노여비 싸몰여 흥을닌이
숙항된 동군어룬 격침지지 시시왕부
자베자상 자품으로 친질부의 달음업시
사랑과 조롱의 말삼
금일은 상식을 잘못하야
흔영게 쏘겨 다지티
소를 타시든 굿티 일이
지금이야 상상된다
그와가치 동셔 분간 업는거늘
그어룬 자품으로 천만가지 길음으로
호감을 사게하여 사랑의 넘친
무궁 무진한 조롱의 말삼도
무안과 떼면을 모르고
나를 조타 총찬 하시미
괴분의 상괘 하든일 그안이 장관일가
그러한 무지 몽미한 간장도
차차 시일의 열영이 먹러
정신도 음을어더 상중 예절아라
분별이 되나 거북할사 나의 책임이야
당상의 신션 갓흐신 존구씨 형제분니
존고 종남미분은 하계 의식영감 손자시고
법전의 참봉나리 강참판의 손자시라
고빈의 고안문상 곁오신 손임
과하를 하시면서 그중의 명필

선싱을 청하여 글시밧고 글짓고
식오촌 형제분 시칠촌 디풍을 검전하셔
열낙의 사무와 만장풍치 시관안처
글익이고 시조 풍월 풍유노리
부호명을 썰쳐슨이 인아 친빈이
한슈호와 억실득실 흰화한디 청의난
향취가 빈창하고 훌농한 정침의난
식조모 동셔분 식존고모 종남미분
차례로 열좌하셔 절문의 흥동범절
일일이 감독하셔 남의게 싸질세나
충효당 늑흔견문 처인당 가법이야
철모르는 절문것 썩닷도록 지도하신
그말삼의 빈우면 그마암은 일호도 싱동안코
사시의 두리운 싱각이야 안밧좌상 늑흔안목
엇지하면 조사하여 허물업시 밧드올지
미사를 식숙모 지도도로 숙지하여
장춘장하 일시 한가한 시간업서
슈입업난 여관이라 호직하는 송성나셔
죽장망혜 무쥬공직 나나리 밀고싸고
미일가치 쥬식간 잔테로다
그당시 광경이야 무어시 부족하리
풍비하고 조흔문호 오릭짓당 못하고셔
천운이 불헿하여 불과 오륙연 지니
경술연 합방의 물솔뿔 하난세상
일인의 천지되어 소일본이 되여고나
고결하신 식삼촌 분명하신 흥금포부
즉섬의 인마로 철이길 서울을 득달하셔
교사를 다려와 영희공입 보통학교를
창입하셔 선싱의 의식쥬를 친히담당 하시고
사면 학싱을 모집하셔 디활동의
노역의 공노도 범민은 당할슈 업는
기세를 가지신 로인기 지화문필
문향간 특점을 가지신셔 판이신디
나라가 망한이 여민이 엇지
티평을 부르고 알낙을 취하리
지운은 점점 비식하여 손지난 거거익심
망국풍진 세상 변천이 되야
조선명가 흰헿문호난 물슈점산 물이되여

남전후담 호가사 일조의 물피하고
삼간초옥 가즌고초 그나마 허다익차
만흔집 횡날마다 우심하고 하나리 아는지물
쏘다흐쳐 나갈적 몹시도 괴로워라
사람의 구분을 미장하고 창피를 당하고
넋껏 버리고 신용일코 일전 일담을
보슈 못하고 근근득심 지나갈적
성제하든 봉제사 죽장망혀 허다빈객
순간의 쓴허지고 한산하고 초라하미
무엇의 비하오니 안빈을 슈장하고
부모난 하늘이라 불공원망 못허였고
도로혀 슈괴갈금 한미안 지심
보양못한 죄가되어 철천의 한이로다
이십오세 단산회도 자식적다 한뭇하고
엇지하여 이가정을 잇글어 회복할고
일영의 용단업산 칭의방도 친부모의
조심걱정 친구로 죄로우미 사절의 울울하다
의식간 도아툼들 엇지당회 닐슈잇나
세월은 유슈로다 합방된 십연이라
괴미연 삼일운동 식삼촌 선도의
쥬모자로 싸 몰어시와 죄지은
이가정 엇지 견디 닐슈잇나
어룬은 고뵝을 허신다
삼노마 허신흥초 당지 디구로 써나시고
여권은 디소가 합권하여 산간벽지
피란하여 사오연 복잡한 인간세상
과학은 점점 발달이 되고
아동교육 방면을 다라 사종 속질을
다리고 환고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종속질 디구가고 일본가고 희망의 곁이나
긋씩 일본이 지금 어느 타국의 비하리
셜상의 가상이라
십오세 어린몸을 희외 말이의셔
의뎡열한 뜻을 뉘가 밧아쥬리
금직한 두최와 초일한 직질이
족히 성공 할 자격이라
혈슈업시 모자만 상의하고 횡장을 준비하여
팔월 망간의 동경을 써나 보닝고

어미된 니간장 천사만사 조심이야
한달의 편지로 삼사차 열낙이나
간조한 마음 사시변화 악풍 한설이나
흥노 셔습이나 한시도 노열시 업고
초조한 심정 복이면 춘잠노코
여름이면 하잠막여 등녹금을 부송한들
소소한 일용잡비 무궁한 고침이야
엇지다 기록하리
공부의 결심은 빅절불 굴이라도
차고 나갈 정역과 지질이나
중학을 졸업하고 디학의 합격 이라하나
거뒀한 학비를 엇지 추진하리
밤낮 심상의 걱정 금할 슈 업든이
민활한 제동심 천고업산 형우제공
형제 합역 디학을 성취하어
십연이란 장구한 시일의 신상의 일점와
탈업시 금의환향 빛난 영광이야
뉘안이 흥양하리
직장의 만공티슈 무어시 부족하리
퀘락하고 깃분경사 선세적 음인가
어미 무자격한 사업은 오즉 자식있다
자랑은 못하나마 슈소한 저의형제
명사영걸 자격이라 미련한 어미소견
니엇지 현모의 자격을 취하리
만사의 형통이나 조상의 영효되고
가정의 행복이라
구구하든 가정형편 확실회복 되오리라
식정신 식출발의 점점디 도시 영전이라
드랄사록 깃분소식 이제야 옛가정 조흔광경
확충회복 고향을 썩썩히 미덧든이
경인연 동난이야 요무산 화익인고
가운도 공참하고 어미의 죄악인가
산악갓흔 영위중망 널직한 괴디가
일조의 슈프로 돌아가고 되돌아
요지경 전공가석 흥익이 쓰쳐
촌장이 칼이되고 만무리 소조
천일도 무상하고 조물도 편혹히라
악독한 세상 복슈 어이하어

미친정신 안정되리
오장을 철뿔을 박아 썩은창자 참통지원
골슈의사모쳐 호흡이 한숨이오
경물이 비참 엇지후야
하로잇흘 긴세월의 촌장만 살오면서
구구히 투싱인고 완독일명 쓰칠날이 언전고
무산미련 괴하고 장구지탕 통약분심
세구다 연할사록 통약골말 이저리고
특릭이 어려질듯 고고골슈 지원니가
방금 인싱 영결을 한들모이
통설 어할자식 어딴 이스리
심약한 신슈지탄 절절 비분
전싱의 무덕후여 형제업고 자식일코
다만제 믹들형제 각문의 출가후고
숙질 동반은 타도의불 이가되여
타별한 식숙모 구슈 지연
조모를 어이아리 임문지초 톱산혜턱
존고 은총은 촌호도 밧잡지못
숙당의 익호지덕 천고의 드무신이
숫숫치 믹셔고약 간하소를 못하고
짜숫후신 하교 자품을 밧잡지 못
가지록 고향이며 이제다만 희망은
석산의 임삼씨 갖흔 손아등
슈소 종반이나 품슈한 골격이
범익범 익안이라
선세 음덕이 밀여 신명의 도움인가
고목심화 여롱여호 과학의 발달
타도 타지의 나혀 노아
쥬송 야리의 보고 보고저운
심정과 천만가지 조심이 한시도
노아 버리지 못 자고식고
심중 소원이 나의손아 등명명
신왕을 흡슈후고 지왕을 접슈하여
학업성취 슈복부귀 겸전 원통한
설분확충 신설을 천지 신명의
발원 양축일다
자식 자손의 욕망은 뉘라 허슈하니
만장팔병 노의신세 일본 일초가 시급함은

환경을 싸라 참을슈 업난
형편이 인칭의 칭노 병사난
인인의 자연이나 심약 심회
나날이 쏠어올라 석일 만회상
소용업난 진드리 촌촌 농진자식
지명은 머나리 동서 길썸인덕
경하 철이의 갈여 적막심회
더욱 요동울화 여장의 다만
소일은 형제 한곳의 모허
현재의 혈심 성우의지 턱산이나
못이져 하난심역 소비도 아쳐롭고
이질늬외 진션진미 한시갓흔 혈성진정
과망사장 동서분 중마고우
친절 이호지덕 감사허다
제베제친이양호일일
추축위안이 동정의
불감이고 나의신슈 이럴
지라도 현부의 지성보양 인세
의 걸인동안 그양저양 지탕
이고 나의파와 쇠핍한그 거
동작을 살퍼주는 손아
숙희아아 부유용도 모르고
자라 전광석화 갓흔 시일의
어나사이 심칠세 온용한
테질 말숙한 자질이 교복
을 입고 교모를 쓰고 교화를
착슈하고 밭일가치 등교
니왕의 어엿분 괴물이
나란희 안자 온화 슈착이
사랑이 소사 동작이 귀흐미
나의 호흠이라 반사 여칭의
일로 칭염을 도아쥬난 인물 엇지
칭명슈의 비하리 노약의 정쳐업산
약회 역사의 김흔소회
심중의 무궁 무진하나 필을듣이
말근 정신은 어딤로 도망간지
희황션 후를차져 모홀슈 업고
노안이 희미 손썰이고 팔져리고

자확도 올치 못하나
오즉 부탁은 손아 혁기아
너가 연약이나 이집의 뒤하야
구세 창손이란 소중 지인이다
현시 풍속이 예의 도덕은
다털어 버리고 사회만 존중하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망국 신평조를
주의하고 학문을 힘써 만인을 지도할
통솔력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되어
효우를 겸전 조상향화 절천석 못를
혈성오로 밧들어 조상의 즉피하고
타인의 슈치를 무릅쓰고 완만희
투싱하난 너하미의 지죄를 확근히
속죄하고 너의들 남여간 오종반이
천황의 슈명과 석순의 부귀를
쏟바다 자손창성 계계승승 문호번영
차경을 설원 후여라
희로이락 열역풍상 가즌형벌 고고절절이라
뒤강뒤강 기록 심사 숙고하여 고만숫

[현대역]

일생 경력1)을 대강2)
추억 기록할까 생아3) 십수년은
존당4)의 높은 은덕5) 부모님 양육지은6)
호가사7) 생장8)으로 무산고락9) 앓았으니
십오육세 겨우 되어 성혼10)이 되었으나
존고11)의 위중한보 번번이 축수12)하라
유월염천13) 삼복증염14) 경보15)가 득달하니16)
천리만길17) 놀라워라 두서없는 걸음이야
경각18)에 시덥이라 들어서니 노소분의
창황망조19) 하신 동정20) 의전격회 새덕온다
구경꾼은 장터같고 철부지 어린간장
희황천지21) 행동체신 어이하리
찌고삼는 그 더위에 시탄22)을 겪었으니
그 형상23) 오죽하리
십여일 고통이야 얼마나 거북한지
보시기에 민망하고 상석24)의 미류지환25)
속히 회복 되오시니 보내신다 품영이며
교군26)이 등대27)하니 우환28)은 용여29)없고
오는 것이 경사같이 집에 와 생각하니
출옥30)하여 형벌받아 하옥31)함이 분명하나
이제는 퍼뜨리고 성공이나 하고온듯
열친척 지정화로 용여자심 다버리고
일삭32)을 호화극락33) 좋은 세월
조물34)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여
팔월 초사일에 비보35)를 받고
발상36)하고 임문하여 초종장례37) 고례38)대로
구월에 안장39)하고 그날부터 많은 고통
높고 깊은 산은 지택 존고는총
일호40)도 못받잡고 상탁41)모자 두었는데
조석제전42) 사시향화43) 엄절예문44) 견문가의
죄인책임 상가예절 부지분수 행동이야
여막45)에 행자행녀 훈정신성46) 곡을 할적
지극하게 쫓아가고 조석제전 받들 적에
말상주 눈에 띄면 상식47)하다 쫓겨나고
이러한 수치48)가 한두번 아니라
우글벅적49) 남노여비50) 싸몰아 흥을 내니
속항51)된 동군어른 격침지지 시시왕부

자배자상 자품으로 친질부⁵²)의 다름없이
사랑과 조롱의 말씀
금일은 상식을 잘못하여
훈령⁵³)께 쫓겨 다지내
소를 타시던 그때 일이 지금이야 상상된다
그와 같이 동서분간⁵⁴) 없는 것을
그 어른 자품⁵⁵)으로 천만가지 길음으로
호감을 사게하여 사랑이 넘친
무궁무진한 조롱의 말씀도
무안⁵⁶)과 체면을 모르고
나를 좋다 칭찬하시니
그 분의 상괘하던 일 그아니 장관일까
그러한 무지몽매⁵⁷)한 간장도
차차 시일에 열령⁵⁸)이 붙어
정신도 유를 얻어 상중예절이라
분별이 되나 거북할사 나의 책임이야
당상의 신선 같으신 존구⁵⁹)씨 형제분의
존고 종남매⁶⁰) 분은하계 의세영감 손자시고
법전의 참봉나리 강참판의 손자시라
고빈의고 안문상길 오신 손님
과하를 하시면서 그중의 명필
선생을 청하여 글씨받고 글짓고
시오촌 형제분 시칠촌 대풍을 겸친하셔
열락⁶¹)의 사무와 만장풍치 시관앓혀
글먹이고 시조 풍월 풍유노니
불호령⁶²)을 떨쳤으니 인아친빈이
한수하여 옥실득실⁶³) 흰화⁶⁴)한데
청의⁶⁵)는 향취가 번창하고 훌륭한 정침에는
시조모 동서분 시존고모 종남매분
차례로 열좌⁶⁶)하셔 절문의 행동범절
일일이 감독하셔 남에게 빠질세냐
충효당 높은 건물 처인당 가법⁶⁷)이야
철모르는 젊은것 깨달도록 지도하신
그 말씀을 배우면 그 마음은 일호도 생동않고
사시의 두려운 생각이야 안팎좌상 높은 안목
어찌하면 자세하여 허물없이 받들지
매사⁶⁸)를 시숙모 지도대로 숙지⁶⁹)하여
장춘장하⁷⁰) 일시 한가한 시간없어

수입없는 여관이라 호객(71)하는 송성(72)나서
 죽장망혜(73) 우주공객 나날이 밀고짜고
 매일같이 주식간 잔치로다
 그 당시 광경이야 무엇이 부족하리
 풍비(74)하고 졸은 문호(75) 오래 지탱 못하고서
 천운이 불행하여 불과 오육년 지나
 경술년(76) 함방(77)의 물끓듯 하는 세상
 일인(78)의 천지되어 소일본(79)이 되었구나
 고결(80)하신 시삼촌(81) 분명하신 황금포부
 즉성의 인마로 천리길 서울을 득달하셔
 교사를 데려와 영해공업 보통학교를
 창립하셔 선생의 의식주(82)를 친히 담당하시고
 사면 학생을 모집하여 대활동의
 노역의 공로도 범민(83)은 당할 수 없는
 기세를 가지신 노인기 재화문필
 문향간 특점을 가지신서 판이신데
 나라가 망하니 여민(84)이 어찌
 태평을 부르고 안락(85)을 취하리
 재운(86)은 점점 비색(87)하여 손재(88)는 거거익심(89)
 망국풍진(90) 세상 변천(91)이 되어
 조선명가 흰혁(92)문호는 물수적산 물이 되어
 남전북답(93) 호가사(94) 일조(95)에 물피하고
 삼간초옥(96) 갖은 고초 그나마 허다액차
 많은 집행 날마다 우심(97)하고 하늘이 아는 재물
 또 다흠어 나갈적 몹시도 괴로워라
 사람의 기분을 매장하고 창피를 당하고
 내것 버리고 신용잃고 일전일답(98)을
 보수(99) 못하고 근근특생(100) 지나갈적
 성제하던 봉제사(101) 죽장망혜 허다빈객(102)
 순간에 끊어지고 한산하고 초라함이
 무엇에 비하오니 안빈(103)을 수장하고
 부모는 하늘이라 불공원망 못하였고
 도리어 수괴(104) 갈금한 미안지심(105)
 보양(106)못한 죄가 되어 철천(107)의 한이로다
 이십오세 단산(108)해도 자식적다 한뭇하고(109)
 어찌하여 이 가정을 이끌어 회복할꼬
 일념(110)의 용단(111)없는 생의 방도
 친부모의 자식걱정 친구로 괴로우미

사절112)이 울울하다113)
의식간 도아준들 어찌 당해낼 수 있나
세월은 유수114)로다 합방된 십년이라
기미년115) 삼일운동116) 시상촌 선도117)에
주모자118)로 싸몰아시와 죄지은
이 가정 어찌 견대낼 수 있나
어른은 고백을 하신다
삼노마 하신 행차 당시 대구로 떠나시고
여권은 대소가 합권하여 산간벽지119)
피난하여 사오년 복잡한 인간세상
과학은 점점 발달이 되고
아동교육 방면을 따라서 종속질120)을
데리고 환고121)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종속질 대구가고 일본가고 희망의 길이
날 때 일본이 지금 어느 타국의 비하리
설상의 가상122)이라
십오세 어린 몸을 해외만리123)에서
맹렬한 뜻을 뉘가 받아주리
큼직한 두뇌와 초일124)한 재질이
족히 성공할 자격이라
할 수 없이 모자만 상의하고 행장125)을 준비하여
팔월 망간126)의 동경127)을 떠나보내고
어미된 내간장 천사만사128) 조심이야
한달의 편지로 삼사차129) 연락이 나간

좋은 마음 사시변화 악풍한설130)이나
홍노서습이나 한시도 놀 수 없고
초조한 심정 봄이면 춘잠놓고
여름이면 하잠먹여 등록금을 부송131)한들
소소한132) 일용잡비133) 무궁한 고생이야
어찌 다 기록하리
공부의 결심은 백절불굴134)이라도
차고 나갈 정력135)과 재질이라
중학을 졸업하고 대학의 합격이라하나
거대한 학비를 어찌 추진하리
밤낮 심상136)에 걱정 금할 수 없더니
민활137)한 제동생 천고없는 형우제공138)
형제합력139) 대학을 성취140)하여

십년이란 장구(141)한 시일(142)의 신상(143)에
일점 가탈(144)없이 금의환향(145) 빛난 영광이야
뉘 아니 흠양(146)하리
직장의 만금태수 무엇이 부족하리
쾌락하고 기쁜 경사(147) 선세(148) 적음(149)인가
어미 무자격한 사업은 오직 자식있다
자랑은 못하나마 수소(150)한 저희 형제
명사영걸(151) 자격이라 미련한 어미소견
내 어찌 현모(152)의 자격을 취하리
만사의 형통(153)이나 조상의 영효(154)되고
가정의 행복이라
구구(155)하던 가정형편 확실회복 되오리라
새정신 새출발의 점점 대도시 영전(156)이라
들을수록 기쁜 소식 이제야 옛가정 좋은 광경
확충회복(157) 고함을 뱉뱉히 믿었더니
경인년(158) 동란(159)이야 요무슨 화액(160)인고
가운(161)도 공참(162)하고 어미의 죄악인가
산악같은 영위중망(163) 널찍한 그둑가
일조의 수포(164)로 돌아가고 되돌아
요지경 전공가석(165) 흥맹(166)이 그쳐
촌장(167)이 칼이 되고 만물이 소조
천일(168)도 무상(169)하고 조물도 편혹(170)해라
악독한 세상 복수(171) 어이하여
미친 정신 안정되리
오장(172)에 철못(173)을 박아 썩은 창자 참통지원(174)
골수(175)에 사무쳐 호흡이 한숨이오
경물(176)이 비참(177) 어찌하여
하루이틀 긴 세월에 촌장만 살오면서(178)
구구히(179) 투생(180)인고 완독일명 그칠 날이 언제인고
무슨 미련 기하고 장구지탕 통약분심
세구다 연할수록 통약골말 이저리고
늑막(181)이 어려질듯 고고골수 지원
내가 방금 인생 영걸을 한들
애통하여 서러워할 자식 어디 있으리
심약한 신수지탄(182) 절절 비분(183)
전생에 무덕(184)하여 형제없고 자식잃고
다만 제 믿을 형제 각문(185)에 출가하고
숙질 동반은 타도의 불이(186)가 되어

타별187)한 시숙모 구순지연188)
조모를 어이 알리
임문지초 태산혜택189)
존고190) 은총은 촌호191)도 붙잡지 못하고
숙당의 애호지덕192) 천고에 드무니
끝끝내 맺혔고 약간 하소193)를 못하고
따뜻하신 하교 자품194)을 받잡지 못하고
갈수록 고한이며 이제 다만 희망은
석산의 임삼씨 같은 손아들195) 주소
종반이나 품숨한 골격이
범의범이 아니라
선세 음덕이 빌어 신명의 도움인가
고목생화196) 여룡여호197) 과학의 발달
타도타지198)에 날아놓아
주송아래199)의 보고싶은 심정과
천만가지 조심이 한시도
놓아 버리지 못 자고시고
심중소원200)이 나의손아 등명명
신왕을 흠숭201)하고 제왕을 접수하여
학업성취202) 수복부귀203) 겸전204)
원통205)한 설분206) 확충신설을
천지신명207)의 발원 양축208)일다
자식 자손의 욕망은 뉘라 허수209)하니
만장팔병 노의신세 일분일초가 시급함은
환경을 따라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인생의 생로병사210)는 인인211)의 자연이나
심약생회 나날이 불어올라 석일 만회상
소용없는 잔들이 촌촌 농진자식
지명은 며느리 동서 길 뿐인데
경하 천리에 갈여 적막심회
더욱 요동울화 여장에 다만
소일은 형제 한곳에 모여
현재의 혈심 성우의지 태산이나
못잊어 하는 심력212) 소비도 애처롭고
이질내외 진선진미 한시같은 혈성진정
과망사장 동서분 죽마고우213)
친절 애호지덕 감사하다
제배제친이 양호일일

추축위안이 동정의 불감이고
나의 신수 이럴지라도
현부의 지성보양 인세의 걸인동안
그냥저냥 재탕이고
나의파와 쇠퇴한 기거동작을 살피주는
손아 속희아 부유함도 모르고 자라
전광석화²¹⁴) 같은 시일에
어느 새 심찰세 온용한²¹⁵) 체질
말썽한²¹⁶) 자질이 교복²¹⁷)을 입고
교모²¹⁸)를 쓰고 교화를 착수²¹⁹)하고
매일같이 등교 내왕²²⁰)의
어여쁜 기물이 나란히 앉아
운화 수착이 사랑이 솟아
동작이 귀함이 나의 호흡이라
반사여생²²¹)의 일로생념²²²)을 도와주는 인물
어찌 생명수에 비하리
노약²²³)의 정처없는 약회²²⁴)
역사의 깊은 소회²²⁵)
심중에 무궁무진²²⁶)하나 필²²⁷)을 드니
맑은 정신은 어디로 도망간지
희황선후를 찾아 모을 수 없고
노안²²⁸)이 희미하고 손떨리고 팔저리고
자획²²⁹)도 옳지 못하나
오직 부탁은 손아 혁기야
네가 연약하나 이 집에 대하여
구세창손²³⁰)이란 소중지인이다
현시풍속²³¹)이 예의도덕은
다털어 버리고 사회만 존중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망국 신품조를
주의하고 학문을 힘써 만인을 지도할
통솔력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되어
효우²³²)를 겸전²³³) 조상향화²³⁴)
절천석 모을 혈성²³⁵)으로 받들어 조상께 즉시²³⁶)하고
타인의 수치²³⁷)를 무릅쓰고 완만히
투생²³⁸)하는 너하미의 제죄²³⁹)를 확실히
속죄²⁴⁰)하고 너희들 남여간 오종반이
천황의 수명과 석송²⁴¹)의 부귀를
본받아 자손창성²⁴²) 계계승승²⁴³) 문호번영²⁴⁴)

차경을 설원(245)하여라

희로애락(246) 열력풍상(247) 갖은 형벌 구구절절(248)이라

대강대강(249) 기록하여 심사숙고(250)하여 그만 끝

[각주]

- 1) 일생 경력 : 한평생 겪거나 거쳐온 직업이나 학력 등을 말함.
- 2) 대강(大綱) : 자세하지 않고 기본적인 정도.
- 3) 생아(生我) : 내가 태어나서.
- 4) 존당(尊堂) :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거나 또는 남의 집이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 5) 은덕(恩德) : 은혜와 덕.
- 6) 양육지은(養育之恩) :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해준 은혜.
- 7) 호가사(好家舍) : 화려하게 잘 지은 집.
- 8) 생장(生長) : 나서 자람.
- 9) 무산고락(無算苦樂) :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음.
- 10) 성혼(成婚) : 혼인이 이루어짐.
- 11) 존고(尊姑) : 시어머님'을 높여 부르는 말.
- 12) 축수(祝壽) : 오래 살기를 빙.
- 13) 염천(炎天) : 몹시 더운 날씨.
- 14) 삼복증염(三伏蒸炎) : 삼복 기간의 몹시 심한 더위. '삼복더위'와 같은 말.
- 15) 경보(警報) : 위험한 일이 닥칠 때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 16) 득달하니 :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
- 17) 천리만길 : 천리 또는 만리나 되는 먼 길.
- 18) 경각(頃刻) : 눈 깜빡할 사이.
- 19) 창황망조(蒼黃罔措) : 너무 급하여 어찌할 수가 없음.
- 20) 동정(動靜) : 일이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낌새.
- 21) 희황천지(羲皇天地) : 복희씨 이전의 오랜 옛적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백성이 태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이르는 말.
- 22) 시탄(猜憚) : 시기하여 꺼림.
- 23) 형상(形狀) : 어떤 일의 형편이나 정황.
- 24) 상석(上席) : 윗사람이 앉는 자리.
- 25) 미류지환(彌留之患) :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걱정.
- 26) 교군(轎軍) : 가마를 메는 사람.
- 27) 등대(等待)하니 : (탈것이) 미리 갖추고 기다리니.
- 28) 우환(憂患) : 근심 걱정.
- 29) 용여(用餘) : 쓰고 남은 것.
- 30) 출옥(出獄) :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옴.
- 31) 하옥(下獄) : 죄인을 감옥에 가둠.
- 32) 일삭(日朔) : 매달의 첫날. 한 달.
- 33) 호화극락(豪華極樂) :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지극히 안락함.
- 34) 조물(造物) : 조물주가 만든 만물.
- 35) 비보(悲報) : 슬픈 소식.
- 36) 발상(發喪) : 상례(喪禮)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 뒤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곡을 하여 초상난

것을 알림.

37) 초종장례(初終葬禮) : 초상이 난 때로부터 졸곡(卒哭)까지의 기간.

38) 고례(古禮) : 옛날의 예절이나 예법.

39) 안장(安葬) : 격식에 따라 정중하게 묻히다.

40) 일호(一毫) : 부정문에 쓰여 ‘한 터럭의 가는 털’이라는 뜻으로, 극히 작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

41) 상탁(床卓) : 제사 때 제물을 차려놓는 상과 향로(香爐)를 올려놓는 탁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42) 조석제전(朝夕祭奠) : 아침저녁으로 의식을 갖춘 제사와 의식을 갖추지 않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43) 사시향화(四時香火) : 사계절에 지내는 제사(祭祀).

44) 엄절예문(嚴節禮文) : 위엄이 있고 매우 엄격한 예법에 관한 글.

45) 여막(廬幕) : 혼백이나 신위(神位)를 모신 자리 옆이나 무덤 가까이 짓고 상제(喪制)가 살던 초막(草幕).

46)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47) 상식(上食) : 상가(喪家)에서 아침저녁으로 케연(几筵) 앞에 음식을 올리는 일. 또는 그 음식.

48) 수치(羞恥) : 부끄러움.

49) 우글벅적 : 많은 사람이 매우 어수선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50) 남노여비(男奴女婢) : 남자노비, 여자노비.

51) 속항(叔行) : 아저씨뻘이 되는 항렬.

52) 친질부(親姪婦) : 형제자매 아들의 아내.

53) 혼령(魂靈) : 죽은 사람의 넋.

54) 동서분간(東西分揀) :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같고 그림에 따라 구분하여 알다.

55) 자품(資稟) :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56) 무안(無顏) : 당혹스럽거나 썩스럽고 부끄러워 낯을 바로 들기가 어려움.

57) 무지몽매(無知蒙昧) :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

58) 열령(列靈) : 여럿의 혼령.

59) 존구(尊舅) : 시아버님.

60) 종남매(從男妹) : 사촌오빠와 누이.

61) 열락(悅樂) : 기뻐하고 즐거워 함.

62) 불호령 : 무척 노한 상태에서 내리는 호되고 급한 명령이나 꾸짖음.

63) 옥실득실 : 여럿이 한데 모여 몹시 어수선하게 북적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64) 흰화(喧譁) : 마구 지껄여 시끄럽게 떠들.

65) 청의(青衣) : 푸른 빛깔 옷.

66) 열좌(列坐) : 자리에 죽 벌여서 앉음.

67) 가법(家法) : 한집안의 법도 또는 규율.

68) 매사(每事) : 날날의 모든 일.

69) 숙지(熟知) : 충분히 잘 앎.

70) 장춘장하(長春長夏) : 장춘은 늘 봄과 같음. 장하는 해가 긴 여름. 또는 음력 6월

- 71) 호객(呼客) : 물건 등을 팔기 위하여 손님을 부름.
- 72) 송성(頌聲) : 공덕을 기리어서 말하는 소리. 또는 태평한 세상을 노래하는 음악 소리.
- 73) 죽장망혜(竹杖芒鞋) : 대지팡이와 짚신이란 뜻으로, 먼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르는 말.
- 74) 풍비(豐備) : 무엇을 풍부하게 갖추.
- 75) 문호(門戶) :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지체.
- 76) 경술년(庚戌年) : 서기 1910년.
- 77) 합방(合邦) : 둘 이상의 나라를 하나로 합침.
- 78) 일인(日人) : 일본사람.
- 79) 소일본(小日本) :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
- 80) 고결(高潔) :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함.
- 81) 시삼촌(媳三寸) : 남편의 삼촌.
- 82) 의식주(衣食住) :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83) 범민(凡民) : 모든 백성이나 국민. 또는 벼슬이나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 84) 여민(黎民) :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검은 맨머리라는 뜻으로 관직에 있지 않은 일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85) 안락(安樂) : 편안하게 즐김.
- 86) 재운(財運) : 재물을 모을 운수.
- 87) 비색(否塞) : 운수가 꼭 막힘.
- 88) 손재(損財) : 재물을 잃어버림.
- 89) 거거익심(去去益甚) : 갈수록 더욱 심함.
- 90) 망국풍진(亡國風塵) : 나라가 망해 어지러운 세상.
- 91) 변천(變遷) :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여 바뀜.
- 92) 흰혁(煇赫) : 빛나고 밝음.
- 93) 남전북답(南田北畚) : 가지고 있는 논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94) 호가사(好家舍) : 화려하게 잘 지은 집.
- 95) 일조(一朝) : 하루 아침.
- 96) 삼간초옥(三間草屋) : 세 칸밖에 안 되는 초가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97) 우심(尤甚) : 더욱 심함.
- 98) 일전일답(一田一畝) : 조그마한 논과 밭.
- 99) 보수(保殊) : 지킴.
- 100) 근근득생(僅僅得生) :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감.
- 101) 봉제사(奉祭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02) 허다빈객(賓客) : 많은 손님.
- 103) 안빈(安貧) :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만족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냄.
- 104) 수괴(羞愧) : 창피하고 부끄러움.
- 105) 미안지심(未安之心) : 미안해하는 마음.
- 106) 보양(保養) : 잘 보호하여 기름.

- 107) 철천(徹天) :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도록 마음에 사무침을 이르는 말.
- 108) 단산(斷産) :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됨.
- 109) 한(恨) 못하고 : 한탄하지 못하고.
- 110) 일념(一念) :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
- 111) 용단(勇斷) : 용기있게 결단을 내림.
- 112) 사절(四節) : 사계절. 일년.
- 113) 울울(鬱鬱)하다 : 상쾌하지 않고 갑갑하다.
- 114) 유수(流水) : 흐르는 물.
- 115) 기미년(己未年) : 서기 1919년.
- 116) 삼일운동 : 1919년에 벌어진 삼일독립만세운동을 말함.
- 117) 선도(先導) :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함.
- 118) 주모자(主謀者) : 주장하여 어떤 일이나 음모를 꾸미는 사람.
- 119) 산간벽지(山間僻地) : 아주 구석지고 후미진 산골.
- 120) 종숙질(從叔姪) : 아버지의 사촌형제조카.
- 121) 환고(還故) : 고향에 돌아옴.
- 122) 설상(雪上)의 가상(加霜) : 눈 위에 서리가 겹침. 곧 어렵고 곤란한 일이 연이어 생김.
- 123) 해외만리(海外萬里) : 이역만리(異域萬里)와 같은 뜻.
- 124) 초일(超逸) : 어떤 한도나 표준 따위를 벗어나거나 뛰어넘음.
- 125) 행장(行裝) : 길을 떠나거나 여행할 때에 사용하는 물건과 차림.
- 126) 망간(望間) : 음력 보름께.
- 127) 동경(東京) : 일본의 수도 도쿄를 말함.
- 128) 천사만사(千絲萬絲) : 길고 가느다란 물건이 여러 갈래로 늘어진 모양.
- 129) 삼사차 : 서너번.
- 130) 악풍한설(惡風寒雪) : 북쪽에서 불어오는 된바람과 차가운 눈. 곧 북풍한설(北風寒雪)과 같은 뜻을 말함.
- 131) 부송(付送) : 물건을 다른데로 부쳐 보냄.
- 132) 소소한 :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한.
- 133) 일용잡비(日用雜費) : 일상생활에서 쓰는 잡다한 비용.
- 134) 백절불굴(百折不屈) : 수없이 많이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 나감.
- 135) 정력(精力) : 몸과 마음의 힘이나 능력.
- 136) 심상(心狀) : 마음의 상태.
- 137) 민활(敏活) : 재빠르고 활발함.
- 138) 형우제공(兄友弟恭) :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다함.
- 139) 형제합력(兄弟合力) : 형제간에 힘을 합침.
- 140) 성취(成就) : 목적인 바를 이루어 냄.
- 141) 장구(長久) : 오래됨.
- 142) 시일(時日) : 어떤 일을 마치기까지의 기간이나 기한.
- 143) 신상(身上) : 사람의 신변에 관계된 형편.

- 144) 가탈 :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 145) 금의환향(錦衣還鄉) : 벼슬을 하거나 크게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오다. 또는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벼슬을 하거나 크게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46) 흠앙(欽仰) : 존경하여 우러러 사모함.
- 147) 경사(慶事) : 축하할 일.
- 148) 선세(先世) : 조상의 세대.
- 149) 적음(積陰) : 조상의 음덕(蔭德).
- 150) 수소(愁訴) : 애처롭게 호소함.
- 151) 명사영걸(名士英傑) : 이름이 널리 알려지거나 훌륭한 사람.
- 152) 현모(賢母) : 현명한 어머니.
- 153) 만사(萬事)의 형통(亨通) :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림.
- 154) 영효(榮孝) : 아버이를 귀하게 되도록 하는 효도.
- 155) 구구하다 : 길고 구차하다. 또는 ‘구구(久久)하다’의 뜻으로 매우 오래됨.
- 156) 영전(榮轉) : 전보다 더 높은 직위나 좋은 자리로 옮김.
- 157) 확충회복(擴充回復) : 늘이고 넓혀 회복하여 충실히 함.
- 158) 경인년(庚寅年) : 서기 1950년.
- 159) 동란(動亂) : 1950년 6월 25일 남북이 대치하여 벌인 6·25전쟁을 말함.
- 160) 화액(禍厄) : 재앙과 곤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61) 가운(家運) : 한 집안의 운세.
- 162) 공참(孔慘) : 매우 참혹함.
- 163) 영위중망(榮位重望) : 영광스러운 지위와 매우 두터운 명망.
- 164) 수포(水泡) :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65) 전공가석(前功可惜) : 이전에 세운 공로가 아깝다는 뜻으로, ‘애써 한 일이 보람 없이 되거나 공을 세운 이가 도중에 일을 크게 망쳐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 166) 흉맹(凶猛) : 흉악하고 사나움.
- 167) 촌장(寸腸) : 마디마디의 창자.
- 168) 천일(天日) : 하늘과 해.
- 169) 무상(無常) : 모든 것이 아무 보람도 없이 헛되고 덧없음.
- 170) 편혹(偏惑) : 지나치게 한쪽에만 마음을 쏟아 정신을 잃음.
- 171) 복수(復讐) : 원수를 갚음.
- 172) 오장(五臟) : 다섯 가지 내장이라는 뜻으로, 곧 간장(肝臟), 심장(心臟), 폐장(肺臟), 신장(腎臟), 비장(脾臟)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마음을 쓰는 본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3) 철뭇 : 쇠뭇.
- 174) 참통지원(慘痛之怨) : 참혹하고 괴롭고 원망스러움.
- 175) 골수(骨髓) : 마음속이나 마음속의 깊은 곳. 또는 의식의 깊은 곳.
- 176) 경물(景物)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 177) 비참(悲慘) :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 178) 살오면서 : 살아오면서

- 179) 구구(區區)히 : 설명이나 변명 등이 길고 구차하게.
- 180) 투생(偷生) : 구차하게 산다는 뜻으로, 죽어야 옳음에도 죽지 않고 욕되게 살기를 꾀함을 이르는 말.
- 181) 늑막(肋膜) : 가슴막.
- 182) 신수지탄(身手之嘆) : ‘신세한탄(身世恨歎)’과 비슷한 말.
- 183) 비분(悲憤) : 슬프고 분함.
- 184) 무덕(無德) : 덕이 없음.
- 185) 각문(各門) : 각각의 집안. 곧 가문을 새로 연다는 뜻에 가까움.
- 186) 붙이 : 혈연관계가 있어 같은 부류에 묶일 수 있는 가까운 사람.
- 187) 타별(他別) : 멀리 떨어짐. 또는 죽어 이별함.
- 188) 구순지연(九旬之宴) : 나이 90을 축하하는 잔치.
- 189) 태산혜택(泰山惠澤) : 큰 산처럼 주는 도움과 이익.
- 190) 존고(尊姑) : 시어머님을 높여 부르는 말.
- 191) 촌호(村戶) : 시골사람.
- 192) 애호지덕(愛護之德) : 사랑하고 지켜준 은혜와 덕.
- 193) 하소 :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말하거나 간곡히 호소함.
- 194) 자품(資稟) :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 195) 손아들 : 자손들. 손주들.
- 196) 고목생화(枯木生花) :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뜻으로, 곤궁하고 운이 없는 사람이 행운을 만나서 잘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97) 여룡여호(如龍如狐) : 용같기도 하고 여우같기도 하고.
- 198) 타도타지(他道他地) : ‘타도타관(他道他官)’과 같은 뜻으로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닌 다른 도와 다른 고을을 말함.
- 199) 주송야래(晝送夜來) : 낮에 보내고 밤에 받는다든 뜻이나 여기서는 ‘밤낮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함.
- 200) 심중소원(心中所願) : 마음 속으로 바라고자 하는 소원.
- 201) 흠숭(欽崇) : 흠모하고 공경함.
- 202) 학업성취(學業成就) : 공부하여 배움을 닦는 일을 이룸.
- 203) 수복부귀(壽福富貴) : 장수와 부유함 그리고 존귀함.
- 204) 겸전(兼全) : 여러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추어 완전함.
- 205) 원통(冤痛) : 분하고 억울함.
- 206) 설분(雪憤) :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거나 앙갚음을 하며 분한 마음을 풀.
- 207) 천지신명(天地神明) :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 208) 양축(仰祝) : 우러러 축하함.
- 209) 허수(虛受) : 재능이 없는 사람이 헛되이 관직을 맡음.
- 210) 생로병사(生老病死) :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큰 고통.
- 211) 인인(人人) : 사람사람마다.
- 212) 심력(心力) : 마음과 힘.

- 213) 죽마고우(竹馬故友) :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한 벗을 이르는 말.
- 214) 전광석화(電光石火) : 번개가 치거나 부싯돌이 부딪칠 때의 번쩍이는 빛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15) 온용(溫容)한 : 조용하고 부드러운 얼굴빛.
- 216) 말숙한 :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 217) 교복(校服) : 학교에서 지정한 옷.
- 218) 교모(校帽) : 학교에서 지정한 모자.
- 219) 착수(着手) : 어떤 일에 손을 대어 시작함.
- 220) 내왕(來往) : 서로 오고감.
- 221) 반사여생 : 반쯤 지나온 인생.
- 222) 일로생념(逸勞生念) : 안일(安逸)과 노고(勞苦)에 대한 생각.
- 223) 노약(老弱) : 늙은 사람과 약한 사람.
- 224) 약회(約會) : 서로 만나기로 약속함.
- 225) 소회(所懷) :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회포.
- 226) 무궁무진(無窮無盡) : 무궁무진(無窮無盡)
- 227) 필(筆) : 붓.
- 228) 노안(老眼) : 늙어서 시력이 약해진 눈.
- 229) 자획(字劃) : 글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
- 230) 구세창손(九世昌孫) : 오래도록 번창할 자손.
- 231) 현시풍속(現時風俗) : 현재의 풍속.
- 232) 효우(孝友) : 효성과 우애.
- 233) 겸전(兼全) : 여러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추어 완전함.
- 234) 조상향화(祖上香火) : 조상들께 제사를 지냄. 향화(香火)는 '제사(祭祀)'와 같은 뜻.
- 235) 혈성(血誠) :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 236) 즉시(卽示) : 바로 알림.
- 237) 수치(羞恥) : 창피하고 부끄러움.
- 238) 투생(偷生) : 구차하게 산다는 뜻으로, 죽어야 옳음에도 죽지 않고 욕되게 살기를 꾀함을 이르는 말.
- 239) 제죄(諸罪) : 모든 죄.
- 240) 속죄(贖罪) :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죄나 과오를 씻음.
- 241) 석송(石崇) : 중국 진(晉)나라 때의 부자로 유명했던 인물.
- 242) 자손창성(子孫昌盛) : 자손들이 번성하여 잘되어 감.
- 243) 계계승승(繼繼承承) : 대대손손이 대를 이어 감. 또는 앞사람이 하던 일을 뒷사람이 이어받음.
- 244) 문호번영(門戶繁榮) : 집안이 번성하고 발전하고 영화롭게 됨.
- 245) 설원(雪冤) : 원통한 분을 풀어서 마음에 맺힌 것을 없앴.
- 246) 희로애락(喜怒哀樂) :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 곧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247) 열력풍상(閱歷風霜) :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음.

248) 구구절절(句句節節) : 하나하나의 모든 구절.

249) 대강대강(大綱大綱) : 철저하지 않고 적당히 건성으로.

250) 심사숙고(深思熟考) : 깊이 잘 생각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